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Q

→

+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의료
10% 할인
병원/약국 인증

학원
5% 할인
학원 인증

체육시설
10% 할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지정 시설

스포츠
10% 할인
골프/스포츠/레저 인증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행하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세히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NK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868 (심의일자 2024.10.17) 유효기간: 2024.10.25 ~ 2025.10.24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d-13136호(2024.10.25 ~ 2025.10.24)

부산체육
2025. 06 Vol. 79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79
2025. 06

체전은 지금
‘2025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 개최

금빛 훈련일지
부산광역시체육회 남자 배구팀

Sports is Busan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산

hockey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06 Vol. 79

발행일 2025년 6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79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부산 스포츠

- 04 **체전은 지금**
'2025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 개최
- 06 **부산체육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
- 10 **금빛 훈련일지**
부산광역시체육회 남자 배구팀
- 14 **푸른 바다, 큰 꿈**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산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18 **경기장 밖 부산**
경기장 밖에서 만나는 자연과 문화의 숨결 - 금정구 & 강서구
- 22 **Sports is Busan**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산
- 26 **전국체전 trivia**
1980년대 전국체전이 만든 스포츠 강국의 청사진
-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FC디낙

하 나 된 꿈, 행복으로

- 34 **스포츠 기자단**
-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 2025 제1회 부산 낙동강 슬로우 철인3종 페스타
- 38 **종목 소개**
필드하키
- 42 **스포츠&컬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와 너,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2025 체육주간 부산광역시체육회 등반대회 개최
-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식
-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06 Vol. 79

발행일 2025년 6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79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공재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 Instagram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부산 스포츠

- 04 체전은 지금
‘2025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 개최
- 06 부산체육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
- 10 금빛 훈련일지
부산광역시체육회 남자 배구팀
- 14 푸른 바다, 큰 꿈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산 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18 경기장 밖 부산
경기장 밖에서 만나는 자연과 문화의 숨결 - 김정구 & 강서구
- 22 Sports is Busan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산
- 26 전국체전 trivia
1980년대 전국체전이 만든 스포츠 강국의 청사진
-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FC디낀

하 나된 꿈, 행복으로

- 34 스포츠 기자단
-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 2025 제1회 부산 낙동강 슬로우 철인3종 페스타
- 38 종목 소개
필드하키
- 42 스포츠&컬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와 너,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2025 체육주간 부산광역시체육회 등반대회 개최
-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식
-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06 부산체육인



10 금빛 훈련일지



22 Sports is Busan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34 스포츠 기자단



38 종목 소개



44 BSC 뉴스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운영팀

‘2025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 개최



부산광역시는 5월 16일 부산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장 주재 ‘2025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이하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회에는 박칼린 총감독과 문화·기획·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운영 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폐회식 연출 방향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폐회식 연출 방향 보고’는 2024년 12월에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올해 5월 최종 선정된 연출 대행사 (주)케이비에스엔(KBS N)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한 부산의 지형, 산업, 스포츠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케이비에스엔(KBS N) 컨소시엄은 한국방송(KBS)의 자회사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 전문업체이며, 컨소시엄에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등 대형 문화 행사를 수행한 (주)케이비에스엔(KBS N)과 각종 문화행사 실행 경험이 풍부한 (주)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 (주)아일랜드브릿지커뮤니케이션즈가 참여하였다.

개·폐회식의 기획과 연출을 총괄하는 박칼린 총감독은 대형 용역사, 연출제작단과 함께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폐회식은 부산의 역동성과 도전정신을 주제로 하여, 부산 해양산업의 시작인 컨테이너와 바다를 배경으로 생명력 강한 부산시민의 정신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비전을 담은 독창성 있는 연출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체육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핵심 이벤트인 개·폐회식을 감동의 무대로 연출하는 것과 더불어 대규모 야외 행사인 만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선수단, 공연단, 관람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부산 전역이 축제의 장이 되는 특별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 10월의 부산이 들썩일 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무대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국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스포츠 제전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은 올해 10월 17일(금), 폐회식은 23일(목)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다.



귀한 응원, 대한민국 체육 발전으로 보답하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 유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유도 종목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하형주 이사장은 '유도 영웅'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 선수 시절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해 나가는 중이다.

올림픽 1세대, 유도 영웅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하형주 이사장은 부산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부산으로 오게 되었다. 이후 동아대학교 진학에 이어 1987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8년 동안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만큼 하형주 이사장과 부산의 인연은 한층 깊어졌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유치 과정에서 남북 체육 교류에 물꼬를 댔던 일, 개막식에서 성화 봉송 최종 주자로 나섰던 일은 제 인생에서 정말 뜻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부산은 저에게 어머니 품속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의미 있는 기억을 남긴 하형주 이사장. 그는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유도 95kg 이하급 첫 금메달 획득을 통해 우리나라 체육계에 큰 업적을 남긴 주인공이기도 하다.

“40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감정이 생생히 떠올라요. 특히 8강에서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미하라 마사토 선수를 꺾었던 경기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세계 유도계가 일본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상대 분석과 깊은 고독감 속에서 극도의 절제력으로 나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며 얻은 값진 결과였습니다.”



하형주 이사장은 올림픽 외에도 아시안게임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록이 곧 유도 강국 대한민국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체육상, 부산광역시 문화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2024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은 뛰어난 업적으로 국위를 선양하였거나 한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모든 체육인들의 귀감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 선정된다.

사명감이 이끈 새로운 길

“금메달리스트로서 분에 넘치는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과 응원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체육인, 학자, 행정가를 역임하며 체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하형주 이사장은 2023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임무를 수행한 데 이어 2024년 11월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체육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스포츠 복지 사업, 경기력 증진 등 체육계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체육 재정의 98%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올림픽의 숭고한 가치를 후대에 계승하고, 사람들이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 시절 경기를 준비하거나 경기에 임할 때면 깊은 고독감을 느낀 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도의 절제력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큰 기쁨을 느꼈다는 하형주 이사장. 그는 예전부터 동경했던 대한민국 대표 체육기관의 수장을 맡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경력 및 상훈

- **2024. 11.~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2024**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
- **2023. 8.~2024. 1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 **2017** 제60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 **2013** 미국 대통령상 체육문화부문 금상
- **2004**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 교환교수
- **1987~2024**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1986**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유도 금메달
- **1985** 대한민국 체육상
- **1984**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남자유도 금메달
- **1984**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최선의 노력이 빚어낼 체육의 미래

대부분의 선수가 그럴 테지만 하형주 이사장 역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 많은 실패를 거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늘 한계에 맞서다 보니 세계 정상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는 선수로서 활동할 때는 물론이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오감을 총동원해 왔다.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철학이라는 그의 다음 목표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오는 7월, 대한민국 체육의 젖줄인 ‘체육진흥 투표권’ 공영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정착이 최우선 과제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약진을 발판으로 삼아,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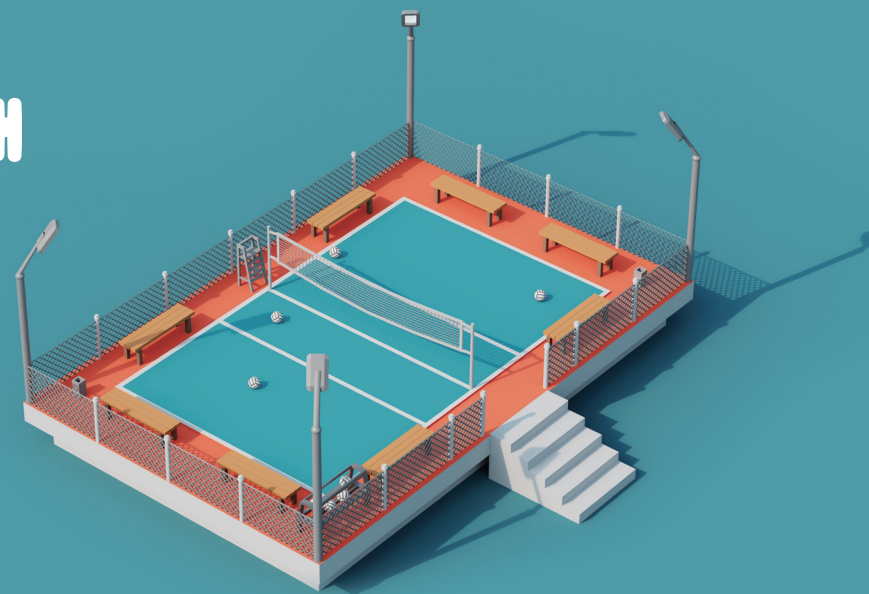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5년을 체육진흥 투표권 공영화의 원년으로 삼고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투표권 건전 운영 체계 강화, 불법 도박 근절 및 대응 강화 등이 중점 과제다. 그의 최선이 이번에도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끝으로 하형주 이사장은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응원의 말을 전했다.

“전국체육대회가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재정, 시설 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좋은 대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체육인들이 그동안 흘린 땀을 증명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땀방울로, 네트 저편 꿈을 향해

부산광역시체육회 남자 배구팀

매일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체력을 단단히 쌓아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오래 뛸 수 있도록
땀 흘리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배구팀을 만나보았다.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부산 출신 감독과 주장,
그리고 막내 선수의 진솔한 각오와 이야기를 전한다.



끝까지 뛰는 법을 가르치는 지도자, 이형두 감독

전 국가대표이자 삼성화재의 든든한 공격수였던 이형두 감독은 선수 시절 ‘해결사’, ‘꽃미남 스파이커’ 등 다양한 수식어를 지녔던 스타 선수였다. 부산 배구의 요람인 동래중학교,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프로 은퇴 후 부산광역시체육회팀에서 선수로 활동한 뒤 현재는 지도자로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 감독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운동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수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면서도 충분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수는 선수 개인의 기량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를 치르는 분위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유로우면서도 서로 뭉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속에서 각자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저 역시 지도자이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한 명의 배구 선배로 선수들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이 감독은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팀 소속 선수들의 신장은 다소 작은 편이지만, 탄탄한 리시브 라인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느 팀보다 강한 체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민한 움직임도 팀의 강점으로 꼽았다. 훈련 전반에서도 체력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운동 선수의 기본은 체력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끌어내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게 해왔고요.”

코칭에 임하는 그의 자세에서도, 선수 시절 큰 부상도 극복하며 오랜 시간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던 강인한 프로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났다. 그는 경기 중 작전 타임에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감독이다. 그의 작전은 이미 훈련에서 완성된다.

“훈련에 어떻게 임했느냐에 따라 경기력은 이미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경기 당일에는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대로 편안하게 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죠.”

인터뷰 내내 운동 선수로서의 극기 정신을 강조했던 그의 말에는, 선수들을 향한 스포츠인으로서의 공감과 부모 같은 따뜻한 마음이 배어 있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스스로 내 한계를 정해버리면 결국 거기까지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다들 더 큰 무대에서 뛰고 싶은 꿈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주장, 제경목 선수의 다짐

제경목 선수는 초등학교 때 쌍둥이 동생과 함께 배구를 시작해, 어느덧 배구 경력 20년 차에 접어든 부산 토박이 선수다. 어릴 때부터 세터와 공격수를 병행해, 성격이 뚜렷이 다른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활약 중이다.

“세터는 야전 사령관 같은 느낌이에요 경기를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지요. 반면, 공격수는 직접 득점을 결정짓는 그 순간의 희열이 정말 커요.”

삼성화재에서 프로 경험을 쌓은 그는 부산광역시체육회팀에 소속된 지 4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전의 대학팀과 프로팀과는 달리,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현재 팀에서는 만이이자 주장을 맡고 있다.

“제 나이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웃음) 팀 동생들이 어린 나이에도 정말 바르고 성실해서 저도 주장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그런 책임감 부분에선 감독님을 정말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꼽았다.

“제작년 전국체전 준준결승에서, 저희 팀이 화성시청팀에 0-2로 뒤지다가 3-2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정말 짜릿했고, 팀원들과도 더 뜨겁고 끈끈해졌죠.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지만, 그 경기 덕분에 한 달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지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그때부터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열릴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팀원들은 새해부터 철저한 전지 훈련 계획을 세우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부산 토박이인 그의 자세는 더욱 남다르다.

“저는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부산에서 자랐어요.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는데, 여러 지역 사람들을 만나봐도 부산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에 더 욕심이 납니다.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어요.”

이형두 감독의 지도 철학처럼, 그는 대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기보다는 평상시 훈련에 매순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꾸준한 노력이 쌓여 제작년 전국체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

“감독님이 늘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자신감도 결국 연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단단한 정신력으로 훈련에 임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요. 이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부산팀도 더 강해졌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팀의 흐름을 책임지는 막내, 변헤민 선수

변헤민 선수는 이 감독의 모교이기도 한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광역시체육회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중학생 때까지는 공격수로 뛰었지만, 또래 선수들에 비해 작은 신장을 고려해 고등학교 때부터 리베로로 전향했다.

“포지션을 바꾼다는 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공격수일 때 리시브를 하는 것과 리베로로서 리시브를 하는 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이 큰 포지션이라 지금도 경기를 땔 때면 많이 떨립니다.”

리베로는 다른 포지션과 달리 경기 중 자유롭게 교체 투입이 가능하고, 유일하게 다른 유니폼을 입는 포지션이다. 직접 득점을 올릴 수는 없지만 득점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되며, 슈퍼세이브를 성공했을 때 관중의 환호도 가장 뜨겁다. 그는 제경목 선수와 마찬가지로, 경기에서 가장 집중하며 희열을 느끼는 순간으로 듀스* 상황을 꼽았다.

“듀스일 때가 경기에서 가장 긴장되고 온 신경을 기울이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정확하게 패스를 올려 우리 팀의 득점으로 이어졌을 때 정말 짜릿하죠.”

* 듀스: 승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동점을 이루는 일. 새로 두 점을 잇따라 얻는 쪽이 이긴다.

팀에 합류한 지 2년 차에 접어든 그는, 고등부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한 만큼 훈련 강도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다. 강도 높은 훈련과 체력 운동을 병행하며, 본래 약점이었던 경기 후반 집중력도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주로 또래 선수들과 운동해왔던 그는 이제 팀의 막내가 되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형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일반부에 처음 적응할 때는 시합 중에도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감사하게도 형들과 감독님께서 긴장을 풀어주시고 자신감을 심어주려 애써주신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박희철 선수가 항상 저를 많이 챙겨줘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일반부 선수로서 대회 경험이 많지 않은 그는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를 중요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그 역시 부산 토박이인 만큼, 고향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설렘과 책임감으로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팀 선수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뽕뽕 뭉쳐, 저희 팀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전지훈련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범실을 줄여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년체전 4년 연속 금메달 획득 기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BUSANJIN-GU
SPORTS CLUB

전국을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 부산에서 나왔다.
2021년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부산진구스포츠클럽.
그 영광의 주역들을 만나보았다.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보이지 않는 조력자

2018년부터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진 사무국장. 부임한 이래 경사가 끊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감회가 새롭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경로점 선수의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을 시작으로 박도훈, 이원, 박진현 선수에 이어 올해 황설후 선수까지 4년 연속 금메달 획득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금메달 2개와 더불어 동메달도 4개 획득하며 클럽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뒀어요.”

클럽 운영부터 선수 육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이 크지만 모든 공을 자신이 아닌 팀 전체에 돌린다.

“좋은 동료들이 뭉쳤기에 좋은 일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체육회에서 보조금 지원부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도와준 것이 안정적인 클럽 운영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 지도자 선생님들이 선수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해주신 덕분에 선수들 기량도 나날이 향상하고 있고요.”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라 여기는 김 국장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비인기 종목이나 육성 종목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클럽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도자보다는 선배로 불렸으면

수영 종목의 김현일 지도자는 배영을 주종목으로 하는 베테랑이다. 17년간 전국을 누비며 선수로 활동하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선수를 지도하고자 하는 열망에 지도자의 삶을 시작했다.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경사를 누리게 되니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성과는 좋은 동료들이 있기에 가능한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 든든하게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국장님, 그리고 선수들을 서포트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이번 경사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일 지도자

김 지도자에게 이번 메달은 특히 뜻깊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에 부임했을 때부터 지도한 황설후 선수가 메달의 주인공이기 때문. 처음 지도할 때부터 뛰어난 기량을 지닌 터라 그는 황설후 선수의 약점을 보완하고 체력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설후는 당연히 금메달을 목에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김현일 지도자는 이번 성과의 이유로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의 쾌적한 훈련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 선수들의 주종목 운동 못지않게 기초체력 훈련도 중요한데, 부산진구스포츠클럽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수영장 바로 위층에 헬스장이 있어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어요. 기구 관리도 잘 되고 있어서 운동 중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더해, 김 지도자는 앞으로의 지도 방향에 대해서도 한마디 남겼다.

“올해 황설후 선수뿐만 아니라 3학년 이재환 선수가 깜짝 동메달을 안겨줬어요. 기량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어려 메달까지는 기대 안 하고 있었던 터라 클럽 직원들도 많이 놀랐어요.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프로그램을 잘 소화하고 있으니, ‘5년 연속 금메달 획득’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2025년의 주인공

황설후 선수는 7살 때 취미로 수영을 시작해 선수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금메달 획득을 축하한다는 말에 그는 지도자에게 특히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하를 해줘서 한동안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웃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항상 선수들을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특히 코치님들에게 감사해요. 사실 물 밖에서 하는 훈련은 힘들고 지루해서 하기 싫어했는데,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다잡아주셨어요. 덕분에 눈에 띄게 기록이 향상됐고 저 스스로도 체력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지구력이 좋아지니 물에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부상도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황설후 선수



이재환 선수

특히나 지도자와 함께한 지난 동계훈련이 이번 메달 획득에 큰 도움이 됐다고.

“육상에서 달리기를 많이 한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체력이 부족하고 자세가 흐트러져있는 게 제 약점이었는데, 동계훈련 때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어요. 덕분에 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훈련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니까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금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훈련하는 시간은 제 삶에 가장 값진 시간일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겠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만나는 자연과 문화의 숨결

금정구 & 강서구

금정구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 명소

부산 금정구는 농구, 자전거, 테니스, 펜싱, 핸드볼 등 다양한 종목이 펼쳐지는 전국체전의 무대다. 경암체육관은 부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복합 스포츠 시설로, 연면적 12,572m², 1,600석 규모의 체육관과 함께 스쿼시장, 체조실, 투기실, 피트니스룸,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실내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돼 일상 속 스포츠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자전거, 테니스, 펜싱, 핸드볼 등의 격전지가 될 스포츠파크는 2002년 ‘금정체육공원’으로 준공되어 2008년 ‘스포츠파크’로 명칭이 변경된 부산의 대표적인 종합 레포츠 단지다.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에 위치한 이곳은 경륜장,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함께 숲속길, 수변공

금정구와 강서구에서 열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의 종목들은 배드민턴, 태권도, 농구, 자전거 등 프로 스포츠뿐 아니라 생활체육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종목들이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주요 경기장과 함께, 경기장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과 문화, 힐링의 명소들을 소개한다.

원, 가족공원, 자전거순환로 등의 자연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싸이트피아, 탄생의 신비관, 재난안전체험관, 어린이교통나라 등 교육·전시 시설과 키즈랜드, 물놀이장, 실내골프장, 휘트니스 센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금정의 숲과 길, 전국체전의 감동을 걷다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농구, 자전거, 테니스, 펜싱, 핸드볼 등이 열리는 금정구에는 경기의 열기를 식혀줄 명소들이 가까이에 있다. 금정산의 청량한 숲길, 회동수원지의 고요한 물빛, 범어사의 깊은 역사 속을 천천히 걸어보자.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전국체전의 감동을 한층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



1.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 금정산

금정구를 대표하는 진산이자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인 금정산은 주봉 고당봉이 해발 801.5m에 이른다.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산마루 우물에서 놀았다’는 전설에서 이름을 얻었다.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가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사계절 내내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완만한 둘레길부터 암벽등반 코스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산행로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자연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2. 도심 속 쉼터, 회동수원지

부산시민의 주요 식수원이자 숨은 힐링 명소인 회동수원지는 총면적 2.17km², 저수량 1,850만 톤 규모를 자랑한다. 2010년부터 시민에게 개방되어 청정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랑받고 있다. 조선 시대 주자학을 공부하던 선비들이 머물렀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이 일대를 오륜대라 부르기도 한다. 편백나무 숲, 땅피산 황토길 등 도심 속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걷기만으로도 맑은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3. 남도 3대 사찰, 범어사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남도 3대 사찰로 꼽히며, 한국 불교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금정산 동쪽 기슭에 자리해 고즈넉한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 풍경이 인상 깊다. 신라 문무왕 18년(678) 의상 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조선 광해군 5년(1613)에 중건되었다. 보물 제434호 대웅전, 보물 제250호 삼층석탑 등 다수의 문화재를 품고 있어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크다.

강서구

▶ 경기장
○ 관광 명소



바람과 물살을 가르는 승부의 현장

강서체육공원은 제106회 전국체전의 배드민턴과 양궁 경기가 열리는 곳으로,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한다. 2002년 완공된 이 체육공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배드민턴과 펜싱 경기를 치른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하키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양궁장 등을 갖추고 있다. 약 21만㎡ 규모의 넓은 부지에는 경기시설뿐 아니라 시민체육시설과 문화센터 등 여가 공간도 조성되어 있으며, 유소년 축구클럽과 지역팀의 전용 연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체육시설과 지역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일상 속 스포츠 문화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복합 체육공원이다.

서낙동강 조정·카누 경기장은 1989년 개장한 국내 대표적인 수상경기장으로, 조정 8레인, 카누 9레인 규모를 자랑한다. 수

심 2m의 경기장은 전국대회 개최 경험이 풍부하며,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와 연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카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 왔다. 관람석은 약 1,000석 규모이며, 바람이 적은 지형적 이점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매년 6월에는 해양스포츠 축제가 열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열린 수상 스포츠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바람 따라 걷는 강서의 길

제106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강서구에는 경기의 열기를 뒤로한 채 잠시 숨 고르기 좋은 명소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개산 전설을 품은 섬 가덕도, 유채꽃이 흐드러지는 대저생태공원, 말과 함께 뛰노는 렛츠런파크까지. 자연과 역사, 가족의 시간이 함께 흐르는 강서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자.

1. 수많은 산과 해안이 펼쳐진 역사의 섬, 가덕도

부산 최대의 섬인 가덕도는 보개산이 바다 속에 잠겼다가 다시 솟아올랐다는 전설을 지닌 곳이다. 최고봉 연대산(459.4m)을 비롯해 대항항과 새바지항, 동백군락지 등 빼어난 자연경관이 펼쳐진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흔적을 간직한 대항항 인공동굴 포진지와 외양포 포진지는 이곳이 단순한 자연 관광지를 넘어 역사와 마주하는 섬임을 보여준다. 산과 바다, 그리고 역사가 어우러진 이곳은 전국체전 관람 이후 조용한 힐링 코스로도 제격이다.



2. 온 가족이 즐기는 말 테마파크,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2005년 문을 연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말 테마파크다. 사계절 썰매장과 분수 놀이터가 있는 더비랜드, 어린이승마장과 바운싱돔이 있는 포니랜드, 각종 구기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에코랜드, 호수공원과 미니기차가 있는 호스아일랜드, 그리고 승마체험과 재활승마가 가능한 승마랜드까지 테마별로 다양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금~일요일에는 경마 관람도 가능하며, 루키존에서는 인생네컷, 다트게임, 초보경마교실 등 무료 체험 콘텐츠도 운영된다.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방문해도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3. 도심 속 생태 휴식처, 대저생태공원 & 맥도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은 대저수문에서 김해공항램프까지 이어지는 둔치 지역에 조성되어 있다. 신덕습지와 수로, 초지, 유채꽃단지, 캠핑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4~5월 유채꽃이 만개한 경관단지(37만㎡)는 많은 방문객들로 봄비는 봄철 대표 명소다. 맥도생태공원은 낙동강 하구에 자리 잡은 자연생태공원으로, 철새가 찾아드는 습지와 계절별 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 있는 생태 공간의 면모를 보여준다. 갈대밭, 연꽃단지, 수생식물원 외에도 축구장, 야구장, 정자, 파고라 등이 구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산



‘꿈꾸는 우리, 어울림과 성장의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5월 24일부터 4일간 경남 일원에서 펼쳐진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만 8,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부산을 빛낸 섯별들

부산 선수단은 17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육상 사전경기에서 금 3개, 은 2개, 동 3개를 획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특히 한국 육상계의 기대주인 이건호(대신중) 선수는 이날 3개의 메달을 따내며 다시금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

대회 1일 차에는 김수민(모라중), 박규필(부산체중) 선수가 각각 남·여 양궁 60m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에어로빅합합, 태권도, 조정, 사이클, 체조, 복싱,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이튿날에는 근대3종 등 31개 경기에 출전해 금 7개, 은 2개, 동 16개를 추가하며 고른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롤러 종목에서는 최예운(해송초)과 김예준(연지초) 선수가 각각 여초부 500m+D, 3000m 포인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1996년 롤러 종목 정식 채택 이후 부산의 첫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수영에서는 부산의 유망주 박도훈(모동중) 선수와 황철후(부산진구스포츠클럽·광남초) 선수가 나란히 2관왕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고, 공건(분포초) 선수는 남자 초등부 접영 50m에서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대회 마지막 날 부산은 금 7개, 은 3개, 동 3개를 추가로 획득하며 총 메달 105개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레슬링에서 이창현(부산체중) 선수가 우승과 함께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단체 종목에서도 부산의 강세는 이어졌다. 농구에서 성남초, 배구에서 경남여중이 각각 우승을 차지하며 종목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특히 경남여중은 ‘2025 춘계 전국 중·고 배구 연맹전’과 ‘제54회 전국종별 배구대회’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전국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야구에서는 수영초가 결승에서 충북 석교초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창단 이래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소년체전 선전 이끈 숨은 주역

이번 대회에서는 부산체중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부산체중은 육상, 체조, 양궁, 역도, 레슬링, 근대3종, 에어로빅합합, 사이클 등 10개 종목에서 총 31개 메달(금 10개, 은 8개, 동 13개)을 획득하며 2013년 개교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한편 스포츠클럽의 역할도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수영 여초부에서 2관왕을 차지한 황설후 선수는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소속으로, 수영을 취미로 시작해 이곳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엘리트 선수로 성장했다. 이번 대회 육상 남중부 100m 금메달을 차지한 이건호 선수 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운영한 부산스포츠클럽 육상 영재 교실 출신이다.

2005년 본격 도입된 스포츠클럽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부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스포츠클럽 9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클럽은 선수 출신 전문 지도자가 재능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며, 초등생부터 지도할 수 있어 중학교 운동부로의 자연스러운 진학 연계도 이루어진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선수 발굴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재능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대회 선전에 대해 “잠재력이 있는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 초·중학교 종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다. 특정 종목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종목에서 성적을 거둔 것은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특성을 고려한 종목 맞춤형 육성과 지원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대회 신기록

틀러						양궁					
종별	세부종목	선수명	소속	학년	기록	종별	세부종목	선수명	소속	학년	기록
남자12세 이하부	1000m	김예준	슈퍼비클럽	6	1:34.488	남자15세 이하부	60m	박규필	부산체육중학교	2	350

다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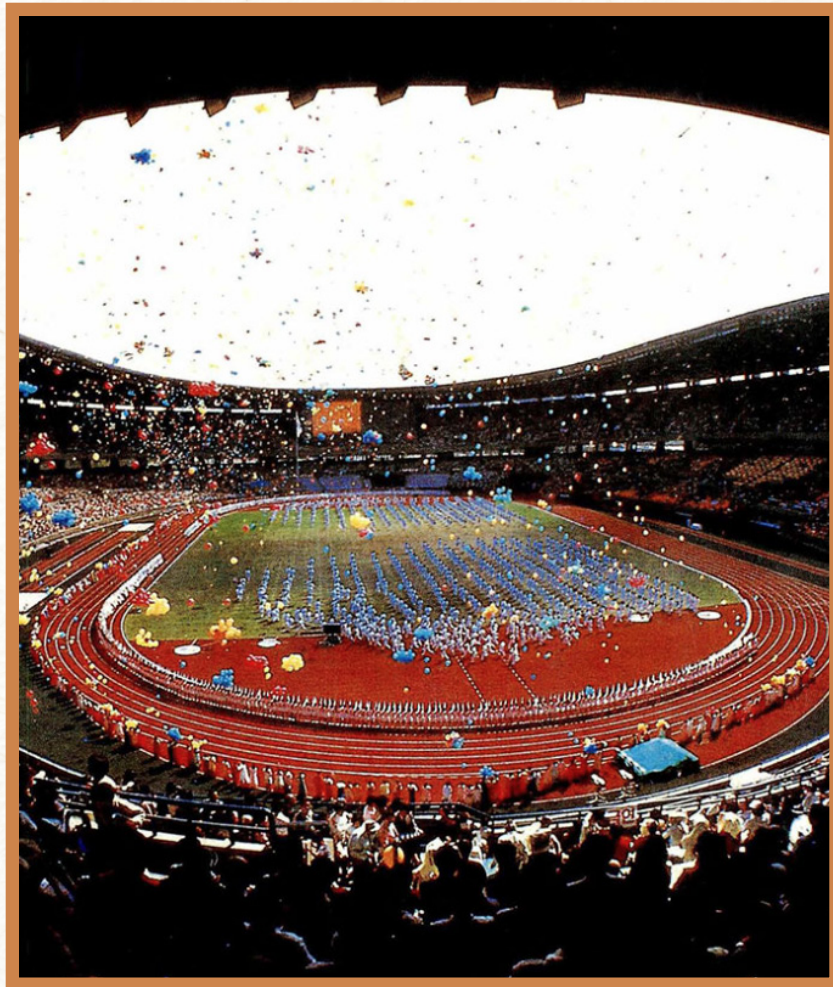
근대3종						수영					
종별	선수명	소속	학년	메달	세부종목	종별	선수명	소속	학년	메달	세부종목
남자15세 이하부	정수영	부산체육중학교	3	1	단체전	남자12세 이하부	공건	분포초등학교	6	1	접영50m
				1	계주					1	자유형50m
	김진우	부산체육중학교	2	1	단체전	남자15세 이하부	박도훈	모동중학교	3	1	접영100m
				1	계주					1	접영50m
	경로겸	부산체육중학교	2	1	단체전					3	계영400m
				1	계주	여자12세 이하부	황설후	부산진구스포츠클럽	6	1	배영50m
	김주원	부산체육중학교	1	1	단체전					1	배영100m
				1	계주					3	혼계영200m



서울올림픽을 향한 전초전

1980년대 전국체전이 만든

스포츠 강국의 청사진



자료 출처: 김상구, 2007. 8., 『전국체육대회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체육사적 의의』,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1980년대 전국체육대회는 더 이상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었다. 이 시기 전국체전은 대한민국이 세계 스포츠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훈련장’으로 기능했다. 서울 아시안게임(1986)과 서울 올림픽(1988)을 향한 준비는 전국체전을 실험무대로 전환시켰고, 경기운영 시스템, 시설, 선수 발굴 등 다양한 면에서 국가 스포츠 체계의 대개편이 이뤄졌다.



제62회 & 제63회

불안과 가능성의 공존

1981년, 서울에서 열린 제62회 전국체전은 여러모로 상징적인 대회였다. 1974년 이후 지방 순회 개최가 이어졌던 전국체전이 7년 만에 서울로 복귀한 것. 대구와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며 독립 참가하면서 13개 시도, 7개 해외동포팀, 약 1만 5천여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심판 판정 불복, 선수 폭력 사건, 조직력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서울올림픽을 걱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당시 언론은 “이런 분위기로는 7년 뒤 서울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오히려 향후 시스템 정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

마산·진주·창원·진해에서 개최된 1982년 전국체전은 여러 에피소드로 기억된다. 성화 점화 도중 석유가 분출되며 검은 연기가 합창단을 위협했고, 비 오는 날 진흙에서 매스게임을 강행하는 장면이 전국에 방송됐다. 올림픽 불 조성을 위한 전국체전으로는 다소 실망스러운 연출이었다.

하지만 이 대회는 해외동포 선수단(광 포함)의 첫 참가, 이북5도 선수단과의 통합 시상, 여자 마라톤 분야의 비약적 신기록 등 밝은 성과도 존재했다. 비록 시행착오가 컸지만, 이것은 더 완성도 높은 전국체전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됐다.

제64회 & 제65회

전산화 시대의 개막

인천에서 열린 제64회 전국체전은 대한민국 체육사에서 ‘과학체전’의 시발점으로 기록된다. KAIST가 전산화를 맡았고, 경기기록·채점·대진표 작성 등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시험 가동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경기 대진 추첨 도중 전산 오류로 전부 무효가 선언되며, 결국 하루 연장 후 수작업으로 재진행해야 했다. 아직 전국체전은 기술적 과도기 속에 있었던 셈이다. 그래도 처음으로 성화에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인조잔디 카펫으로 잔디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큰 진전을 이뤘다.

이 대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궁도와 양궁을 분리하여 정식 종목으로 운영하면서, 훗날 세계최강 대한민국 양궁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구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체전은 LA 올림픽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대회 연출 면에서 미국식 관중 연출기법인 카드섹션이 국내 최초로 도입됐고, 성취상·질서상 등 시상 항목도 신설되었다.

한편, 축제성과 문화적 연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달구벌 축제와 연계된 문화행사들은 지역 주민들과 관중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대회를 하나의 지역 축제로 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제66회 & 제67회

갈등과 성과의 교차점

춘천·원주·강릉에서 분산 개최된 이 대회는 서울 아시안게임 리허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경기 종목이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전 종목으로 구성되었고, 근대5종·요트·다이빙 등 비인기 종목이 최초로 채택되었다.

춘천에서는 사상 첫 선수촌 아파트가 마련되었고, 해외동포 참가국으로 사이판과 브라질이 새로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이 대회는 장애인 선수 26명이 휠체어를 타고 입장한 최초의 대회로, 서울 패럴림픽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서울·경기도·부산에서 개최된 제67회 전국체전은 서울 아시안게임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태에서 열린 리허설 대회였다. 경기장 대부분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그대로 활용했고, 조직위원회의 부분 참여로 실제 운영 흐름을 점검했다.

개회식에서는 LA 올림픽을 벤치마킹한 스카프섹션 연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식당·조명·도핑검사·환풍시설·훈련장 등에서는 수많은 미비점이 노출되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운영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68회 & 제69회

올림픽을 향한 도약의 무대

광주직할시와 전남 7개 시·군에서 열린 이 대회는 서울 올림픽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국가대표 전원 참가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비공인 세계신기록 2개, 한국신기록 44개, 대회신기록 431개 등 총 500건이 넘는 신기록이 쏟아졌다.

이 대회는 전국소년체전과의 연계 속에서 ‘전병관’이라는 보석 같은 선수를 발굴하기도 했다. 역도 유망주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서울 올림픽에서 은메달, 바르셀로나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며 소년체전의 위상을 높였다.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이 열린 해였다. 때문에 이 해 전국체전은 사상 초유의 분산 개최, 개폐회식 생략, 성화 봉송 미실시, 시·도 종합시상 폐지 등 대폭 축소된 형태로 열렸다. 대신, 종목별 경기단체의 대회와 병합해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의 전통성과 기록 보존, 지방체육시설의 활용, 올림픽 시설의 운영 점검이라는 실리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국체전,

서울 올림픽의 숨은 주역

1980년대 전국체전은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민적 대사를 향한 진검승부의 장이었다. 시행착오와 기술 도입, 스포츠 외교와 사회 참여가 혼재된 복합적인 무대였다. 전국체전은 국가대표를 키우는 등용문이자, 지방 체육의 부리를 내리게 한 실천적 장치였다.

그리고 이 치열했던 10년의 노력은 마침내 1988년 가을, 세계가 감탄한 서울 올림픽으로 화답을 받게 된다.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인내와 기쁨 바다낚시 동호회 ‘FC디낚’

낚시는 대자연 속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상·하체 근력을 고르게 활용하는 생활 스포츠다.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스포츠피싱’이란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낚시 인구와 산업이 확대되면서 정식 종목 등록이 논의되고 있다.

Q. ‘FC디낚’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마루후지’라는 이름으로 바다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호회가 만들어졌어요. 2020년에 ‘Fishing Community Digital 낚시’의 각 첫 글자를 따서 ‘FC디낚’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 동호회는 바다낚시 중에서도 인내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갯바위 낚시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어종은 감성돔, 참돔, 병에돔 등을 위주로 합니다.

Q.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현재 총 3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은 부산이 15명으로 제일 많고, 대구 12명, 여수 3명입니다. 연령대는 다양한데 4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 회원들이 있어요. 회원들의 낚시 경력은 적게는 4년 정도, 많게는 30년 이상도 있습니다. 임원은 회장인 저와 총무 1명, 고문 4명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지역 고문을 맡고 있는데요, 동호회 방향성이나 세부 운영에 대해 조언하고, 신규 회원의 정착과 전체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동호회에서 유일한 여성 회원이기도 합니다. 주변 여성들에게도 낚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므로 조만간 여성 회원이 몇 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Q. 동호회 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정기 출조(정출)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하고 있어요. 가까운 부산으로 가기도 하지만 사람이 많다 보니 거제, 통영 지역으로 자주 갑니다. 정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 대부분이 참석해요. 번개 출조(번출)는 원하는 회원이 동호회 소통 창구인 네이버 밴드에 제안을 올리면 몇몇 회원이 답글을 달아 성사되죠. 번출은 말 그대로 횡수 제한이 없고 참가도 자유입니다. 뜻 있는 회원들은 함께 대회에 나가기도 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인 6월 8일 ‘부산광역시장배 방파제 바다낚시대회’에 회원 한 분과 참가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양영의 고문

이상주 회장



Q. 낚시에 입문하신 계기와 경력이 궁금합니다.

-  제 고향은 강원도 평창인데요, 어렸을 때 살던 집 앞에 강이 있어서 자주 강에 가서 놀았죠. 강물이 워낙 맑다 보니 물고기도 많아서 5살 때쯤부터 자연스럽게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지 친구들보다 물고기를 상당히 잘 잡아서 동네에서 민물낚시 천재로 이름을 알렸죠. (웃음) 이후 계속 낚시를 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사이클 동호인으로도 활동했었는데, 그 기간만 제외하면 거의 평생 낚시를 한 셈이죠.
-  저는 물속에서 하는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수영은 20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고, 스킨 스쿠버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합니다. 좀 특별하게 해녀 자격증도 있어요. 이렇게 바다와 워낙 친숙하다 보니 낚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혼자 부산 태종대에 가서 낚시를 하기도 하고, 선상낚시도 나가보면서 2~3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어느 순간 전문적으로 갯바위 낚시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싶어서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죠. 갯바위 낚시 동호회 경력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Q. 인생 최고의 출조를 소개한다면?

-  2023년에 부산, 거제 앞바다에 대규모 청어 떼가 몰려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어 떼가 있는 곳에는 갈치도 많은데요, 이 소식을 접하고 지인과 부산신항 부근에 출조를 계획했습니다. 이날 갈치가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폭이 3지(손가락 3개 너비) 또는 4지에 달하는 갈치를 500여 마리나 잡았어요. 갈치가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준비해온 가방들이 터질 지경이었죠. 여기저기 나눠주고도 많은 양이 남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  5년 전쯤 여름으로 기억하고 장소는 아마 통영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날은 모든 회원들이 뜻대로 안 풀리는 날이었어요. 모두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낚싯대에 반응이 오더라구요. ‘어렵게 잡은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필사적으로 낚싯대를 끌어올렸죠. 생각지도 못하게 40cm 정도 되는 참돔이 저를 찾아왔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되니까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제가 전체 1등을 차지했죠. (웃음)

Q. ‘우리 동호회, 이걸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  회원들 간 유대감이 아주 끈끈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어느 동호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 자부합니다. 초보 회원에게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도 큰 자랑이죠. 함께 낚시를 즐기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고, 낚시 중에서도 특히 갯바위 낚시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모일 때마다 뜨거운 열정이 느껴져 좋습니다. 출조할 때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 장비를 필수 착용하고, 서로의 컨디션을 자주 체크합니다. 또한 낚시한 자리는 물론 주변 일대 환경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해양 환경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는 멋진 동호회입니다!

Q. 향후 동호회 운영 계획은?

-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다른 팀들과 교류 대회가 끊겼는데, 올해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타 팀과의 교류 단절에 대한 대안으로 연 2회 자체 대회를 추진해왔고 실력 검증 등 성과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무래도 회원들의 실력 향상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현재 교류전을 추진 중입니다.



회장님, 고문님이 전하는
초보자도 낚시 잘하는 꿀팁

1. 초보자는 가을 낚시부터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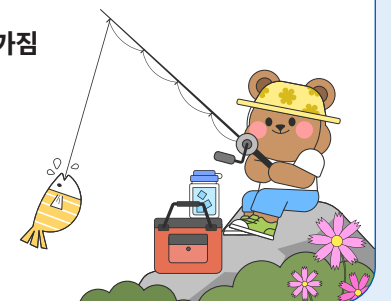
사계절 중 가을에 가장 낚시하기에 환경이 좋음

2. 구멍조끼, 전용 신발 상시 착용

수영은 하면 좋지만 못 해도 OK

3. 여유 있는 마음가짐

갯바위 낚시는
기다림이 필수!



어르신 건강과 화합의 장 열리다!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양하람

5월 16일,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매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부산 지역 어르신들의 뜨거운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개회식은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하여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각 구·군 대표 선수단과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시작을 알리는 힘찬 개회 선언과 함께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승부를 겨루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큰 의미를 가졌다. 1,500여 명의 어르신 동호인이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여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다양한 종목들이 진행된 가운데, 특히 테니스 경기장은 노련함과 열정이 가득한 선수들의 플레이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대회 테니스 종목에는 부산 각 구·군을 대표하는 어르신 선수가 대거 참가하였다. 각 대표선수들은 젊은 선수 못지않은 민첩한 움직임과 정교한 기술로 코트 위를 누볐고 힘 있는 서브와 날카로운 발리, 빈 곳을 찌르는 절묘한 드롭샷 등 그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선수들은 승부를 떠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려운 공을 받아 내거나 멋진 샷을 성공시켰을 때, 상대 선수에게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어르신 스포츠가 추구하는 건강한

경쟁과 존중의 가치를 잘 보여주었다. 코트 밖에서는 동료 선수들과 응원 온 관계자들이 목청껏 응원하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경기 결과에 기뻐하거나 아쉬워하는 모습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결승전에서는 해운대구와 남구가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마지막 승부를 펼쳤다. 노련한 경기 운영과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해운대구와 젊은 패기 못지않은 투지로 맞선 남구의 대결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집중력 싸움 끝에 해운대구가 값진 승리를 거머쥐며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테니스 종목 우승팀으로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남구는 준우승을,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한 사하구와 연제구가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메달의 색깔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코트 위에서 땀 흘리며 열정적인 경기를 펼친 모든 선수가 이번 대회의 진정한 승자였다. 이번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는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대회를 넘어,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며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스포츠를 향한 어르신들의 뜨거운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응원한다.

2025 제1회

부산 낙동강 슬로우 철인3종 페스타 성료

화명생태공원 일대에서 1,000여 명 참가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김도호

부산 낙동강변을 무대로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이색 철인3종 경기대회가 5월 4일 처음으로 열렸다. 기록보다는 자연을 즐기며 자신만의 속도로 완주하는 ‘슬로우 철인3종’에 대한민국 철인3종 최초 올림픽 출전 선수인 허민호 선수와 전국 동호인 1,0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북구 화명생태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초보자와 가족 단위 참가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대회종목은 스탠더드(올림픽 코스로 불리는 철인3종의 표준 코스), 스프린트(스탠더드의 절반 거리 코스), 미니코스(가장 짧은 입문자용 코스), 아쿠아슬론(수영과 달리기 2종목 구성 코스), 듀애슬론(자전거와 달리기 2종목 구성 코스), 가족팀 릴레이로 운영되었다.

이 중 스탠더드는 낙동강 119 수상구조대 인근 구간을 왕복하는 ‘1.5km 수영’과 양산 원동진사를 왕복하는 ‘46km 자전거’, 화명생태공원 남단 구간을 왕복하는 ‘10km 달리기’로 구성되었다. 이날 주최 측은 대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수상구조대와 응급의료 인력 등 20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 수영, 자전거, 달리기 구간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개회식에는 성희엽 부산광역시정채수석, 박가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임준구 부산광역시 철인3종협회장, 손태욱 부산광역시체육국장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임준구 회장은 “화명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교감하는 철인3종 대회에 미니 철인3종, 가족팀 릴레이를 포함시켜 엘리트 선수 및 동호인 선수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기획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손태욱 체육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낙동강 유역을 생활 스포츠와 결합해 대내외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회 현장을 살펴보면, 대회는 화명생태공원의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표준거리 참가 선수들은 허민호 선수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철인3종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출발했으며, 1.5km 수영은 코스를 2바퀴 돌고 나와서 사이클 바꿈터로 이동했다. 수영을 마치고 나오는 선수들에게는 진행요원들의 안내와 응원 온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었다. 이에 선수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며 힘을 냈다.

종목이 6개나 되었던 만큼 혼돈이 생길 수 있었지만, 시간대별로 출발 시간을 달리하여 대회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기록이 나오는 대회가 아니었기에 이번 대회는 자신과의 싸움이 관건이었다. 대회 중간중간 힘들어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보였으나, 허민호 선수와 부산광역시체육회 철인3종 선수들이 경기를 잘 이끌어주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경쟁보다는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자신의 한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회가 많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수 INTERVIEW

☞ 철인3종을 하게 된 계기는?

- 허민호(남/35세)** 5살 때 체력이 넘쳐서 부모님이 유아스포츠타단에 입단시켰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철인3종 선수였고,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 김규리(여/28세)**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수영선수를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한 계기가 되어 철인3종 소년체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개인전 2위와 단체전 3위를 하게 되면서 철인3종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철인3종의 매력은?

- 허민호(남/35세)** 갖춰진 실내경기장에서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하는 게 매력입니다. 매 대회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도 좋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경기를 뛰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 김규리(여/28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성취감이 큰 종목입니다.

☞ 그동안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 허민호(남/35세)** 대회 일정이 잡히면 대회에 맞춰 감독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했으며, 부족한 종목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특별 훈련도 병행하였습니다.
- 김규리(여/28세)** 저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으로서 박찬호 감독님의 지도 아래 꾸준히 체계적으로 시합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실전과 유사한 훈련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키울 수 있었고, 시합 당일에는 준비한 만큼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임했습니다.

☞ 대회 수상 경력 & 입상 소감?

- 허민호(남/35세)** 인천 및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은메달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획득한 금메달 13개입니다. 대회 때마다 입상은 고생한 만큼 값진 것이기에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 김규리(여/28세)**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 2위, 2024 쿼드타우 아시아 트라이애슬론컵 1위, 2025 푸트르자야 아시아 트라이애슬론컵 3위입니다.

☞ 앞으로의 운동 계획은?

- 허민호(남/35세)**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전국체전에 더욱 집중해서 훈련할 예정입니다.
- 김규리(여/28세)** 올해 부산 전국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8년 LA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기록 향상과 국제무대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 입문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 허민호(남/35세)** 기록 경쟁보다 자연을 느끼면서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규리(여/28세)** 철인3종은 기록보다 마음을 담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흘리는 땀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천천히라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진짜 철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인3종을 시작하신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열정 가득,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 필드하키

‘하키’라고 하면 빙판 위를 바람처럼
가르는 선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서 ‘아이스하키’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하키 종목에는 아이스하키뿐
만 아니라 필드하키, 인라인하키 등
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필드하키는
아이스하키 못지않게 역동적인 경기
로 인기가.

태양 아래 열정 가득 뜨겁게 질주하
는 필드하키에 대해 알아보자.

하키 유래

필드하키를 알아보기 전, 하키의 유래를 살펴보자. 영국의 스포츠 연구가 데이비드 모간
에 의하면 하키의 시초는 기원전 2000년경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이집트 나일강 근처
베니 핫산에서 발견된 어느 무덤의 벽화에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막대기를 맞대고 있는 모
습이 발견되었으며, 1922년 아테네 해안의 방파벽에서는 양각의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여섯 사람이 오늘날의 볼리*와 비슷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 후 고대
그리스와 중세 로마를 거쳐 영국으로 전파되었다고 전해지며, 우리나라에 하키가 도입된
건 1945년이다.

* 볼리: 하키 경기를 시작할 때 양 팀의 선수가 한 명씩 나와 볼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채 스틱으로 지면을
세 번 치고 난 뒤 볼을 빼앗는 일

필드하키란?

‘하키’는 원래 필드하키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후 아이스하키, 인라인하키, 롤러하키 등이
생겨나면서 이와 구분하기 위해 ‘필드하키’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하키는 11명으로 이루어진 두 팀이 J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막대기로 공을 패스 또는 드리
블하여 상대편 골대에 넣어 점수를 거루는 구기 경기이다. 작고 단단한 공을 사용하며 자
갈, 천연 잔디, 모래 또는 인조 잔디에서 진행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일 성별 팀끼리
경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혼성 팀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1958년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86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대표팀이 동반 우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 서울 올림픽, 1996 애틀랜타 올림픽, 2000 시드니 올림픽, 2002 부산 아시안게
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등에서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며 하키 강국으로 명성을 떨쳤다.



자료 출처: 대한하키협회,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필드하키 경기 진행 규칙

필드하키는 한 팀당 골키퍼 포함 11명으로 구성되어 쿼터당 15분씩 총 4쿼터 60분 동안 경기를 진행한다. 축구, 핸드볼과 같이 상대방의 골대 안으로 공을 넣으면 득점이며, 더 많은 득점을 올린 팀이 승리한다. 만약 정규 시간까지 동점일 경우, 각 팀 5명씩 쏜아웃을 진행하여 승패를 가린다. 양 팀의 주장이 토스로 진영을 정한 후, 불리로 경기를 시작한다.

필드하키의 특별한 규칙 몇 가지를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선수 교체는 몇 차례든 제한 없이 가능하며 이미 경기를 뛰었던 선수가 다시 뛸 수도 있다. 골문 앞 슈팅 허용 구역(슈팅 서클) 라인 밖에서 슈팅한 공이 골대로 들어가면 골라인 아웃 처리되며, 쏜을 제외한 경합 상태에서 볼을 의도적으로 무릎 높이 이상 높게 띄우는 행위 등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을 일으킨다면 반칙이다.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정강이 보호대 외에 다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의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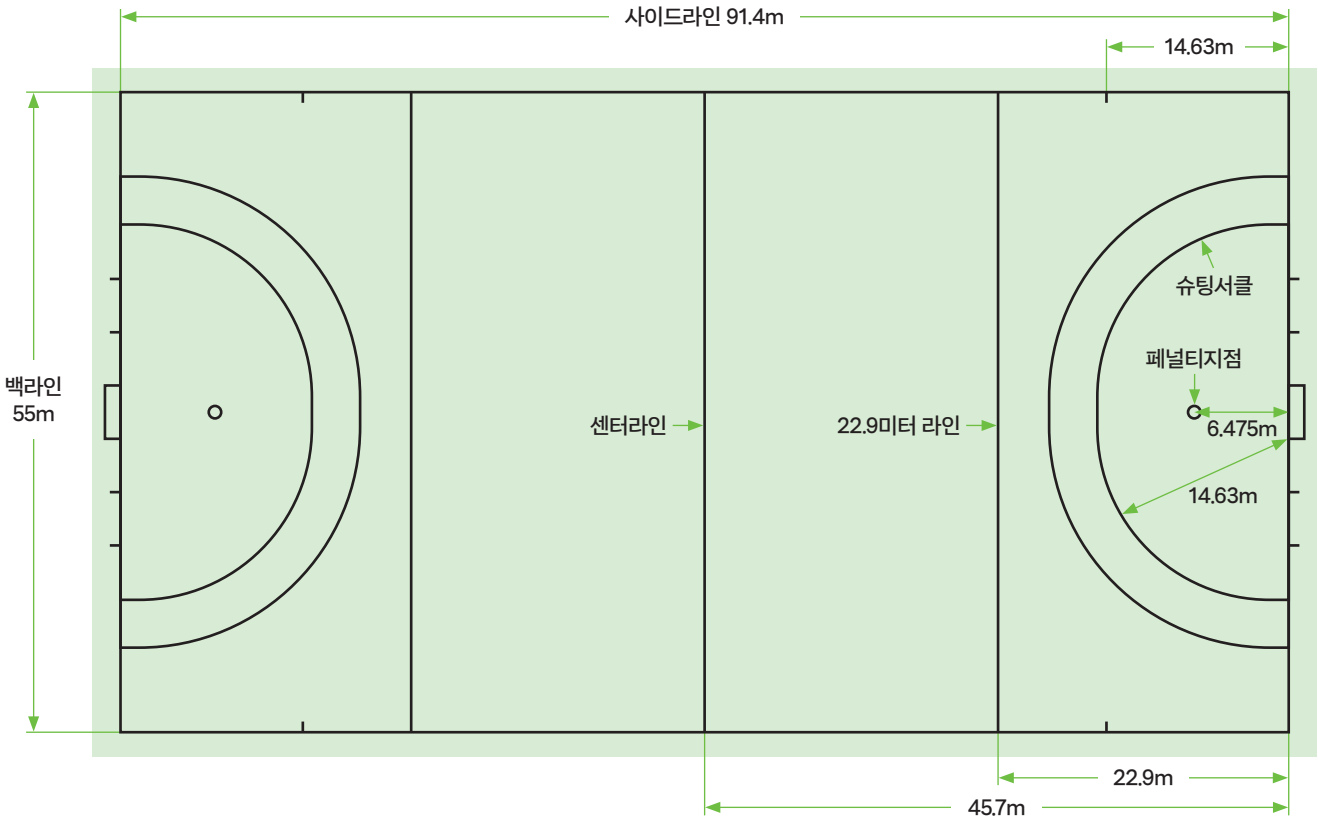


필드하키 관련 용어

히트 스틱을 크게 스윙하여 공을 때리는 동작	스쿱 스틱의 머리 부분을 약간 공 아래쪽에 두고 공을 삽으로 뜨는 것처럼 지면에서 띄우는 동작	푸시 공과 스틱의 헤드가 경기장 지면에 닿은 상태로 공을 움직이는 동작
플리크 지면에서 공을 들어 올리기 위해 공을 미는 동작	백스틱 스틱의 뒤쪽으로 공을 치는 동작	스트로크 스틱으로 공을 플레이하거나 때리거나 밀면서 움직이는 동작
하이스틱 어깨보다 위로 스틱을 들어 올리는 동작	프리 히트 상대편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공을 치는 것으로, 다른 선수는 4.6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	

필드하키 경기장 및 골대

경기장은 길이 91.4m, 폭 55m 크기이다. 경기장의 모든 선은 75mm의 넓이로 표시하며, 선도 경기장의 일부다. 긴 선(91.4m)이 사이드라인, 짧은 선(55m)이 백라인이다. 반지름(14.63m) 부근에 골을 노리기 위한 슈팅 서클이 있고, 각 골 라인의 중앙 안쪽 가장자리에서부터 6.475m 앞쪽에 페널티샷을 때리기 위한 페널티지점이 있다. 골대는 높이 2.14m, 넓이 3.66m이다.



달리기를 축으로 한 문학과 인생에 관한 회고록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하는 것 -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일단 리듬이 설정되기만 하면, 그 뒤는 어떻게든 풀려 나간다.

그러나 탄력을 받은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가속하는 힘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달리기에 대해 정직하게 쓴다는 것은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정직하게 쓰는 일이기도 했다.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데뷔한 무라카미 하루키는

1987년 『노르웨이 숲』을 통해 전례없는 베스트셀러 열풍과 ‘하루키 신드롬’을 일으키며 세계적인 작가로 떠올랐다. 그의 글은

차분하면서도 감각적인 문체와 철학적인 주제 의식이 어우러져 깊은 여운을 남기며, 일본 문학의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고유한 문학 세계를 가리켜 ‘하루키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올해 76세인 하루키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상징하는 작가로

자주 언급된다. 46년간 작가로 활동하며 평균적으로 1년 반에

한 권꼴로 꾸준히 신작을 발표해 왔다.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6시간 글을 쓰고, 오후에는 10km를 달리거나

1.5km 수영을 소화한다. 그 후 독서와 음악 감상으로 시간을 보내고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작가이자 러너’라고 표현한다. 1978년 전업 작가가 된

후부터 달리기를 시작한 하루키는 70대에 접어들기 전까지 매년

마라톤 대회와 철인3종 경기에도 꾸준히 참가했다.

그는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쓴 소설의 성향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지 모른다고 고백한다.



MURAKAMI
H A R U K I

소설가 하루키에게 ‘달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수많은 운동 중에서도 하필 고투와 시련으로 가득 찬 마라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 쓰기는 육체노동이다’라고 말했던 하루키는 체력과 집중력, 지구

력을 키우기 위해 달리기를 선택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작가로서의 능력과

창조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했다고 믿는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유지하는 것이 지적 작업을 위한 사고의 민첩성과 정신의 유연성을 지

탱해주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하루키에게 ‘달리기’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발

간 당시 60세의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달렸던 하루키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 책은, ‘달리기’에 관한 기록인 동시에 데뷔 30년을 맞은 그의

문학관과 인생관에 대한 진솔한 성찰이기도 하다. 한계를 인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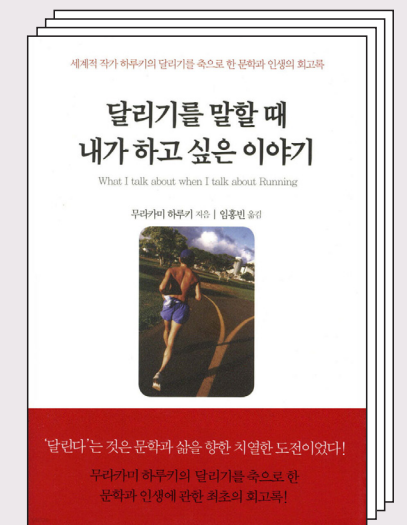
조금씩 목표를 높이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마라톤과 소설

쓰기는 닮아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해나가는 모든

일에 임하는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달리는

작가’ 하루키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저자 무라카미 하루키 / 출판사 문학사상

2025 체육주간 부산광역시체육회 등반대회 개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기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체육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등반대회를 4월 30일(수) 금정산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등반대회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직원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체육국,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체육회, 종목단체, 실업팀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건강한 체육 정신을 나누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등반대회는 체육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가올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함께 준비

하는 화합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전 준비운동과 함께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기념품 제공, 환경 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도시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성화 캠페인을 이어가며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식 10개 종목 입상, 금메달 61개 포함 총 191개 메달 획득 성과

부산광역시체육회는 5월 30일(금)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여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부산선수단에 대한 시상과 성과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해단식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부산선수단의 활약을 공유하고, 종목별 유공자를 시상함으로써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고 체육 가족 간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부산선수단과 회원종목단체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산선수단은 지난 4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총 35개 종목, 1,37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61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2개로 총 191개 메달을 획득하였고, 해단식을 통해 종합순위에 입상한 10개 종목(1위 체조 / 2위 국학기공, 에어로빅합합, 육상, 축구 / 3위 그라운드골프, 롤러, 사이클, 수중핀수영, 철인 3종) 회장과 실무자에게 표창패가 수여되었으며, 최고령 및 최

연소자 남녀 참가자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졌다.

또한 체조 종목의 생활댄스체조 부문에서는 대회 7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한 부산여자대학교 BWC댄스컴퍼니 팀의 앵콜 공연도 열려 참가 동호인들의 열정과 감동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꾸며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스포츠 도시 부산인 만큼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체육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오는 10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동호인 선수와 체육 가족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6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해 화합과 감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체육회 9개 종목 1,500여 명 참가

부산 어르신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가 지난 5월 16일(금)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어르신체육대회를 매년 주최하고 있다.

부산사직실내체육관 등 8개소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16개 구·군 체육회에서 9개 종목(국학기공,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축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체조)에 걸쳐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각 구·군 대표 선수 및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16개 구·군 청장 및 구·군 의장,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대회에 참여한 동호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축하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오늘 대회가 동호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체육회에서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체육천국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기 결과

구분	1위	2위	3위	
국학기공	연제구	서구	해운대구	동구
체조	수영구	사상구	강서구	해운대구
게이트볼	수영구A	중구B	북구A	중구A
그라운드골프	사상구	북구	금정구	남구
배드민턴	사하구	동래구	부산진구	금정구
축구	해운대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탁구	동래구	수영구	부산진구	사하구
테니스	해운대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파크골프	북구	사상구	남구	동래구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2025년 중구체육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 간담회 개최

2025년 중구체육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 간담회가 5월 9일(금) 개최되었다. 체육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장,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회원종목단체의 활성화와 발전 등 올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의견을 주고받으며 중구체육회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서구체육회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서구 국학기공팀 준우승

5월 16일(금), 사직실내체육관 외 8개소에서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 증진 도모를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한 행사로, 총 16개 구·군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서구체육회는 게이트볼, 국학기공, 탁구, 축구, 체조, 파크골프 등 총 6개 종목에 88명의 어르신이 참가하였다. 그중 국학기공 종목에서 서구 대표팀이 총 14개 팀 중 준우승을 차지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동구체육회



제44회 동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부산동구축구협회는 5월 11일(일) 제44회 동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동구 3개 클럽과 축구 동호인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축구동호인 동오회와 동육회의 친선경기도 진행되었다. 모든 동호인들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경기 결과 1위는 동부산축구회, 2위는 한울림축구회, 3위는 수정축구회가 차지하였다.

영도구체육회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축구 준우승

5월 16일(금),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에 영도구는 총 7개 종목에 출전하였다. 그중 축구 종목에서 어르신 선수들이 탁월한 기량과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해 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영도구체육회 한영익 회장을 비롯한 여러 이사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부산진구체육회



제23회 부산진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

5월 8일(목), 황령산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제23회 부산진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진구 관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자리를 빛냈다. 대회는 치열한 접전 속에 마무리됐으며, 황봉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초연 팀이 준우승, 백양 팀이 3위를 기록하였다.

동래구체육회



동래구체육회, 동래구공공지원센터로 사무국 이전

동래구체육회가 동래구청의 지원으로 동래구공공지원센터 내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새로운 사무실은 동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이전을 계기로 동래구체육회는 구민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며 체육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남구체육회



2025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5월 18일(일), 백운포체육공원 외 3개소에서 2025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남구체육회 정춘식 회장, 오은택 남구청장, 박수영 국회의원, 서성부 남구의회의장뿐만 아니라 시·구의원들과 남구체육회 임원들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025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는 배드민턴 사전경기를 비롯하여 검도,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야구, 족구, 탁구, 테니스까지 총 8종목의 경기가 열렸고, 약 2,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북구체육회



2025 북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5월 12일(월),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북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결과 남자 부문 MVP는 문임규(109타), 1위는 안병일(111타), 여자 부문 MVP는 이희심(107타), 1위는 이춘화(111타)가 차지하였다. 모든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화합의 장을 펼친 가운데 대회는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해운대구체육회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참가

5월 16일(금), 사직실내체육관 등 8개소에서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해운대구 선수들은 게이트볼, 축구, 그라운드골프 외 5개 종목에 출전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해운대구체육회 박영곤 회장 등을 포함한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한마음으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그 결과 테니스와 축구 종목에서 우승, 국학기공 종목에선 3위, 체조 종목에서 장려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사하구체육회



2025 해달맞이생활체육교실 운영

사하구체육회는 5월 1일(화)부터 2025 해달맞이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대포 낙조분수공원광장, 하단유수지 주민어울마당 총 2개소에서 국학기공 종목으로 오전 6시부터 사하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신체 활동 증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력 향상 및 생활 습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금정구체육회



금정구 생활체육 시즌 개막

2025 금정구청장배 태권도 한마당 대회, 부산트트정형외과 원장배 겸 제27회 금정구배드민턴협회장기 및 후쿠오카시협회 교류대회, 제29회 금정구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제11회 금정구청장배 탁구대회가 개최되어 본격적인 생활체육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종목별로 실력을 겨루고 동호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 속에서 금정구 생활체육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강서구체육회



제6회 강서구파크골프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제6회 강서구파크골프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5월 19일(월)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김재업 회장, 김형찬 구청장 외 여러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 700여 명이 참석하여 클럽별 상호 친목을 다지고, 체력 증진과 경기력 향상에 의의를 두고 부상자 없이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연제구체육회



제3회 연제구배구협회장기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5월 18일(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제3회 연제구배구협회장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배구를 사랑하는 1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특히 부산 생활체육 경기 중 최초로 ktHCN 부산방송의 AI 카메라가 도입되어 배구 종목 특유의 스펙타클한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대회 결과 남자 우승은 연제클럽, 준우승은 연산클럽, 여자 우승은 연산클럽, 준우승은 신구회클럽이 차지하였다.

수영구체육회



2025년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영구체육회는 5월 8일(목)부터 상반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종목은 SUP, 탁구, 골프, 크로스핏, 요가, 대기구 필라테스 총 6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 18일(수)까지 종목별 4~12회차로 진행된다.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수영구민들이 생활체육을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의 경험을 쌓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사상구체육회



2025 사상구청장배 체육대회 개최

5월 18일(일), 삼락생태공원 축구장 A·B구장에서 2025 사상구청장배 6개 종목 체육대회가 성대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족구, 야구 등 6개 종목에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열정의 장을 함께했다. 이날의 열정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사상구민이 하나되어 만들어낸 건강한 공동체 정신과 지역 스포츠 문화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축제의 장이었다.

기장군체육회



2025년 기장군 5개 읍면 체육대회 개최

5월 10일(토) 일광읍, 11일(일) 기장읍, 장안읍, 18일(일) 정관읍, 철마면 등 각 읍면별로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투호놀이, 신발양궁, 윷놀이 단체줄넘기 등 협동 경기와 주민들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과 같은 이벤트도 진행하였으며, 여기에 지역 문화 공연, 장터가 함께 운영되어 지역사회의 화합과 활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신설프로그램 라인댄스 무료 공개수업 개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6월에 개강하는 신설 프로그램 라인댄스D반 홍보를 위해 5월 19일(월), 21일(수) 양일간 무료 공개수업을 개최하였다. 라인댄스 공개수업에 참가한 한 회원은 “라인댄스 수업을 통해 이웃과 만나고 안부도 묻고 건강또한 챙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수업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지난 2011년 10월 개관한 북구국민체육센터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수영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배관과 여과기로 인한 수영장 수질 악화, 수전 부식 등 이용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이고 이 기간 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스튜디오 등)는 전관 임시휴업에 들어간다.



영도국민체육센터

2025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영도구체육회와 협력하여 2025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 생활체육교실은 영도구민 또는 영도구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5월 7일(수)부터 7월 15일(화)까지 필라테스, 줌바댄스, 라인댄스, 스피닝 총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운동 습관화와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NFORMATION



2025년도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소방훈련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5월 23일(금) 강서구 보건소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 상황을 가정, 신속한 상황 통보와 대피, 인명구조는 물론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진화 시뮬레이션이 포함됐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화재 및 재난 발생 대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의 안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2025년 제7회 부산광역시 전국빙상 동호인대회 개최
부산시빙상동호인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제7회 부산광역시 전국빙상 동호인대회’가 지난 6월 4일(수)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열렸다. 2019년 시작된 이 대회는 2024년부터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고 있다. 전국 18개 동호인 클럽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종합우승 및 종목별 우승자에게 시상금이 주어지며, 개인 기량은 물론 계주에서의 협동심도 돋보이는 경기가 펼쳐졌다.

부산실내빙상장



제8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시니어 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5월 21일(수) 제8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시니어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스포원테니스장 등 5개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60세 금·은배, 65세 금·은배, 90세부 등 11개 부문에 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국의 시니어 테니스 동호인들이 모여 젊은 동호인들의 귀감이 되며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체육관 환경개선공사
신평장림체육관은 5월 1일(목)부터 15일(목)까지 휴관 기간을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했다. 샤워실에는 선반을 추가 설치했고, 탈의 공간은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구성했으며, 탈의실 내에도 선반과 거울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평장림체육관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1

제20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5월 16일(금),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제 20회 어르신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주최,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16개 구·군 중 11개 구·군 130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해운대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2

2025년 부·울·경 아이스하키 교류전 개최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부·울·경 지역 아이스하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아이스하키 교류전을 개최하였다. 교류전은 남성초등학교, 창원대블스 등 지역 내 팀들과 교류하며 선수 간의 기량 향상과 스포츠 정신 함양의 장이 되었다. 분기별로 정기 개최되는 교류전은 팀 간 기술 교류는 물론 지역 간 유대 강화와 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동의과학대는 앞으로도 유소년 선수 육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스포츠 협력을 통해 아이스하키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3

2025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테니스 여자 단체전 동메달 획득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의 테니스 전문선수팀에서 5명의 선수가 부산대표로 선발되고, 김경원 감독은 부산여초 주무팀 감독을 맡아 2025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였다. 김경원 감독의 코칭하에 꾸준한 훈련으로 실력을 쌓은 부산거점 부산대표팀은 김서진(초5) 선수가 12세 이하 여자초등부 단체전에 출전하여 3위 동메달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에 힘입어 테니스 전문선수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4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운영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의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특화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체육취약계층, 지역특화형 두 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한다.

체육취약계층 사업에는 시니어건강체조, 라인댄스 프로그램이 지역특화형 사업에는 줘바, 파워로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이번 호의 <금빛 훈련일지> 인터뷰 대상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실업팀입니다. 프로리그 출신의 이형두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 실업팀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농구 ② 배구 ③ 야구

2 지난 5월 24일에서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부산은 총 몇 개의 메달을 획득했을까요?
① 95개 ② 105개 ③ 110개

3 지난 5월 16일 부산 어르신 동호인들의 축제인 어르신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 어르신체육대회는 몇 회 개최였을까요?
① 제10회 ② 제20회 ③ 제30회

『부산체육』 제78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당첨자
1. ② 축구 2. ③ 3위 3. ② 브레이킹	서*배(8166) 김*구(1518) 유*은(7570) 황*겸(6394) 오*용(5794)
	임*지(0628) 이*채(5648) 남*경(4014) 김*혜(9321) 함*용(9793)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매일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체력을 단단히 쌓아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오래 뛸 수 있도록 땀 흘리는 부산광역시체육회 ○○팀을 만나보았다.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부산 출신 감독과 주장, 그리고 막내 선수의 진솔한 각오와 이야기를 전한다.

<금빛 훈련일지> 10쪽

2 **힌트** 대회 마지막 날 부산은 금 7개, 은 3개, 동 3개를 추가로 획득하며 총 메달 ○○○개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Sports is Busan> 23쪽

3 **힌트** 부산 어르신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회 어르신체육대회’가 지난 5월 16일(금)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BSC 뉴스> 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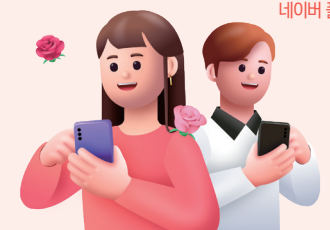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5.6.13.(금)~6.30.(월)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80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너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AP-01 라운드 긴팔 BLACK
SS 숏스탑 반바지 BLACK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프로 선수의 스포츠웨어, 어썸스타

KEEP GOING

롯데자이언츠 선수
No.21 박세웅

<https://awesomestar.co.kr/>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REUSHION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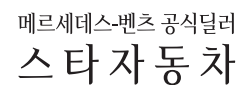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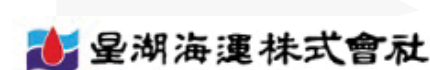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walkon

구입처 <https://walk-on.co.kr/> 문의처 051-521-3442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부산진성

조선 성종 21년(1490년) 부산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 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사 속을 산책하는 도시, 부산

도시 곳곳이 살아있는 박물관이며
두근두근 가슴 뛰는 역사의 현장인 부산!

“이곳은 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남쪽 국경이며
나라의 자물쇠와 같다.”

- 남요인후(南微咽喉), 서문쇄약(西門鎖鑰) -

부산진성에 가면 볼 수 있는 글귀로
부산은 국가 수호에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이며
한반도의 관문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선열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역사의 도시

부산을 사랑합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